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19로 몸살을 앓았던 한 해에도, 감사의 계절인 11월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전염병, 미국과 한국 부정선거 소식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던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면서, 동시에 추수의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 객가선교신학원 사역

객가선교신학원에서 사역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신학교에 출근하면서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월요일 "설교학"(3학점), 화요일 "선교와 문화인류학" 강의(2학점), 화요일 저녁 "예수님의 생애와 선교" 강의(2학점), 목요일과 금요일 "예수님의 생애"(TEE) 공부 2개반 인 도, 주일에 대만의 다양한 교파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로 봉사하면서 저의 한 주간이 쏘살같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 간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저가 100명 가까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TEE를 소개하고 도전"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 TEE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부터 매달 1차례 TEE 집중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의 사역과 건강,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객가신학원 원장 "온영생"목사를 통해 배우는 은혜

온목사는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 1958년생이지만, 너무 배울 것이 많은 동역자입니다. 대만 대학 화공과를 졸업한 후 전도유망(前途有望)한 앞날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해 온 "주의 충성된 종"입니다. 중화복음 신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도원시에 평전교회를 개척하여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까지 35년간 목회를 한 후,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올 10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평전교회를 통해 새로이 개척을 한 교회 수가 13군데, 선교사를 24명 지원했고, 목회자를 36명 배출했습니다. 그 결과 35년 전에 2곳 밖에 되지 않던 평전교회가 속했던 교회 수가 지금은 20개소로 늘어 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온목사는 20년 전 부터 평전교회를 목회 하면서 동시에 객가선교신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으로 지금까지 20년을 신학원 원장을 겸직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전임으로 객가신학원 원장직을 맡게 되었고, 은퇴할 때까지 봉사할 예정입니다.

온목사 부부는 "목양일념(牧羊一念)"으로 평전교회와 객가신학원을 섬겨왔고, 사례도 "교회에서 받으니 신학원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며 평생을 살아 왔습니다. 사례금액도 자신은 가족이 많지 않으니 다른 동역자들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가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사택을 구입했는데, 그 사택도 자신의 부부가 죽고 난 후에는 교회와 신학교에 헌납하기로 하여 은퇴식 참석한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온목사의 겸손한 리더십, 사심 없는 헌신, 희생적인 삶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도 남은 생애를 "사심없이, 아낌없이, 후회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3. 향후 계획과 사역

내년 1월12일까지 객가선교신학원 사역을 마치면 1월13일부터 2월11일까지 잠시 한국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저의 모친이 올해 88세이신데, 치매가 심해져 정부에 신청하여 가사 도우미 신청을 할 계획이고, 또 제가 한국을 오래 떠나 있어 저의 신용카드의 기간이 만기가 되어 이곳에서 선교비를 인출할 수가 없어서 신용카드 갱신을 해야 하고, 심지어 이메일까지 막혀 복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가서도 14일, 이곳에 돌아와서도 14일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격리 기간을 기도와 준비의 시간으로 삼고, 하는 수 없이 잠시 일시 귀국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설교학2, 미션퍼스펙티브, 모세오경을 강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목회자 집중세미나를 포함하여 TEE 4개반을 인도해야 합니다. 주인께서 힘주셔서 저가 맡은 강의와 설교 사역, TEE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중국과 대만 교회를 섬기는

하중복/권성일 배상

기도제목

1. 11월30일-12월1일 양일간 객가신학원 "학술세미나"때 TEE에 관한 논문을 잘 발표하도록, 또 발표를 통해 참석하는 목회자들에게 TEE 과정 집중 강의 반이 잘 개설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2. 이번 학기 강의(설교학, 선교와 문화인류학)를 잘 마치도록, 평전교회와 죽동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TEE 3개 반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주말에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 사역으로 봉사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러한 봉사가 대만 교회들을 각성하며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3. 저의 부부와 두 아들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